

# 여수·순천시, 인구 30만명 달성 '올인'

### 다양한 인구유입·출산장려 정책 적극 시행

### 현재 여수 29만1458명·순천 27만7379명

전남 동부권의 중추도시인 여수와 순천이 인구 30만명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인구 유입 및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 달 인구 증감 여부까지 살펴보면 시 일회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집계된 여수시 인구는 29만1458명으로, 전달에 비해 92명이 증가했다. 1434명이 늘고 1342명이 줄어든 것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인구가 소폭 감

소했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인 것은 출산율 급증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도내 타 시·군에서의 지역 전입인구가 전출을 앞지르면서 이른바 '순유입' 인구가 9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주를 시작한 웅천지구 지열 2차와 엑스포힐스테이트 등 웅천·죽림 신주택지구 내 대단위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시장의 구도변화와 이에 따른 인구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기관 및 기업들의 인사철

에 따른 외지인구 유입과 해양경찰 교육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 이전,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 정착환경이 크게 개선된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인구증대를 위한 정책적 장려 또한 인구증대의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수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민 되기' 캠페인 등의 시책이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7대 시책, 33개 과제가 포함된 '2020, 35만 인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현재 인구 27만7379명으로 여수보다 적은 순천시는 지난 4일 순천시 한의사회와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3자녀 출산 가정에 한방 집약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협약을 맺었다. 시는 이 외



지난 4일 순천시는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순천시 한의사회와 출산장려 협약을 맺었다.

에도 지난해부터 약사회, 음식업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순천=예정열기자 yjy@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곡성군-진보심사평가원 광주지원

### 의료수급권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곡성군은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원장 김덕호)과 의료수급권자 지원과 관리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보와 교육지원, 양 기관간 이해증진을 통한 상호 공동 발전체계 구축 및 사회공헌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소평은 억제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진료, 심사평가원 심사요구, 건강보험공단 급여일수 결정, 연장승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코드 관리상의 비현실성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업무 이외에도 농번기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활동도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양 기관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농가 일손 더는 순천 매실전정사업단

지난 4일부터 '순천 매실전정사업단'이 노동력과 기술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매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정 작업을 해주고 있다. 사업단원은 모두 34명으로 상반기는 이달 말까지, 하반기는 오는 11월에서 12월까지 활동한다. <순천시 제공>

구례군은 5일 "벼 육묘 취약농가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육묘 부담 경감을 위해 구례농협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최근 벼 육묘장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례농협은(조합장 이상수)은 지난 4일 광의면 지천리에 소재한 벼 자동화육묘센터에서 조합원, 농업인, 기관단체 관계자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사진) /구례=이성구 lsg@

## 전북

# 남원 노암동 '아트빌리지' 조성 순조

### 합파우 유원지에 35억 들여 2016년 시립미술관 건립

### 소리마을·도예촌 유치...춘향테마파크 연계 관광명소로

남원시가 노암동 일대 합파우 유원지에 추진하는 오감만족형 아트빌리지(Art Village)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원시는 춘향테마파크와 연계해 합파우 유원지에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아트빌리지사업을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서울대 김병중 교수의 작품을 전시할 시립미술관과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도예촌 등을 유치된다.

시는 지난해 김병중 교수와 미술관에 전시할 작품기증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16년까지 35억원을 들여 시립미술관을 완공할 계획이다. 부지 8000여㎡에 건립되는 시립미술관은 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갖추게 된다.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은 100

여원을 들여 2015년까지 소리명상길, 생태주차장, 걷고 싶은 도로, 광장 등을 조성한다.

남원 도예촌에는 도예 빌리지를 조성, 심수관 도예전시관과 연계해 도예의 고장 남원의 명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자원~남원관광지~춘향테마파크~합파우 유원지를 잇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광한투원 북동쪽에 조성하는 남원예촌, 예가달길 사업과 더불어 구도심 및 시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순창 강천산 순환형 탐방로 완료

순창군이 6억33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한 '강천산 순환형 탐방로'사업이 최근 완료됐다.

5일 군에 따르면 강천산 순환형 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 사업을 마쳤다. 이 사업을 통해 육호봉 등산로인 1공구에는 탐방로 조성 및 목재판 계단, 산림욕장 앞 2공구에도 탐방로 조성 및 조경수 식재 등이 추진됐다. 특히 장안마을에서부터 산림욕장까지 구간인 3공구에는 탐방로가 조성되고 원주목 계단, 전망대와 팔각정 등이 들어서면서 운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3공구 구간에 설치된 팔각정

은 장안마을 뒤에 있는 광덕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어 장안마을 주민들이 '천재각(사진)'이라 이름짓고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천산권역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영훈)는 오는 7일 팔덕면 장안리 광덕산 천재각에서 강천산권역의 발전,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천재각의 준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천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51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부터 올해 12월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정읍시립중앙도서관

### 19일부터 본격 운영

'정읍시립도서관'이 '정읍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 보급자료 이전해 오는 19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내장상동 옛 상동정수장 부지에

들어선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연면적 3500㎡로, 4층 규모다.

시립중앙도서관은 13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열람실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시립중앙도서관은 본격 운영에 앞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시설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ss@



### 순창군 경로당 물리치료가 지원

순창군이 올해 19억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369개 경로당에 운영 비용을 물론 물리치료가 수리비, 냉난방기 구입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은 경로당 내 물리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순창군 제공>

수도작 위주의 영농에 맞게 설치돼 있어 시설하우스 등 원예특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담수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돼 있다. 시는 지난해에 용배수로사업 대상지구를 현지 전수 조사해 2015년까지 사업 예정지구를 선정할 바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고흥 벼 못자리용 상토 구매

### 단가입찰 방식 전환 큰 호응

고흥군이 벼 재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못자리용 상토의 구매방식을 단가입찰 방식으로 바꾸어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쌀재배 농가에 지원되는 상토 공급업체로 3곳을 선정해 이달 중 농가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상토 20㏓ 1포를 2600원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단가입찰 방식을 적용해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기존에는 농가가 납품단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공급업체를 선택해 계약해 왔는데 이 때문에 상토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농가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상토 20㏓ 1포 거래 가격이 3800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단가입찰 방식으로 매우 저렴하게 상토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에서 지원하는 1포당 농가 보조금도 지난해 1500원에서 올해는 2000원으로 높아 농가부담액은 1포당 2300원에서 600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농가부담이 6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농협 지원 등을 감안하면 추가 부담이 거의 없는 농가도 있을 전망이다.

군은 올해 10억8000만원을 들여 상토 54만포(20㏓/1포)를 지원하는데 지난해보다 물량은 4만포, 예산은 3억3000만원을 늘렸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 구례 벼 자동화육묘센터 준공

구례군은 5일 "벼 육묘 취약농가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육묘 부담 경감을 위해 구례농협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최근 벼 육묘장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례농협은(조합장 이상수)은 지난 4일 광의면 지천리에 소재한 벼 자동화육묘센터에서 조합원, 농업인, 기관단체 관계자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사진) /구례=이성구 lsg@

건축면적이 2100㎡인 육묘장에는 모두 9억8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군과 농협은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육묘장 설립 사업에 이어 못자리상토, 새끼우렁이,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 다목적 농기계 공급 등의 지원도 넓혀나갈 방침이다. /구례=이성구 lsg@

## 단신

### 주한 인도대사, 전주 탄소 산업 협력방안 논의

비쉬누 프라카쉬 주한 인도대사가 5일 전북 전주의 탄소관련 시설을 방문, 탄소 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비쉬누 프라카쉬 대사는 이날 전주에 있는 한국 탄소융합기술원, 국제탄소연구소와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하는 (주)비나텍 등을 시찰했다.

전주시와 인도 하리아나주는 지난

해 10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민간 차원의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프라카쉬 대사는 "주한 인도대사관은 전주와 인도의 탄소 관련 기업들이 신제품의 공동 연구와 개발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 고창군, 20일부터 '주민정보화 교육'

고창군은 5일 "2014년 주민정보화 교육 제1회 과정을 17일까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1과목에 총 29회로 준비됐으며,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활용 등 초급과정과 트위터&페이스북, 사진편집, 영상편집

등 다양한 과정이 신설됐다. 올해부터 교육장소를 여성회관 1층 컴퓨터강의실로 옮겨 운영한다. 교육일정 및 수강신청은 군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생활복지정보화교육 코너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고창=유창영기자 cy0370@

### 정읍시 상반기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

정읍시가 2014년도 상반기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난 3일부터 공모에 들어갔다.

오는 20일까지 공모하는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도내 2014

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상법상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해당된다.

전라북도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6일 도청 중회의실(3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ss@

### 남원시 올해 용배수로 정비사업 30억 투입

남원시는 상습적인 재해 피해를 줄이고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30억원을 투입해 용배수로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현재 4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용배수로 현대화를 오는 2016년까지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현재 설치된 용·배수로는 대부분

수도작 위주의 영농에 맞게 설치돼 있어 시설하우스 등 원예특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담수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돼 있다. 시는 지난해에 용배수로사업 대상지구를 현지 전수 조사해 2015년까지 사업 예정지구를 선정할 바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